『영미연구』
제41집 (2017): 49-78

『캔터베리 이야기』 현대어 번역에 대한 재고: 점성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 동 일

[국문초록]

제프리 초서 번역은 몇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첫 번째는 중세어라는 고전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 추정에 있으며, 두 번째는 초서가 의도한 어휘들이 많은 경우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은유 등의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500년이 넘는 시대의 간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합한 현대어 대응어 선택의 어려움 때문이다. 초서의 많은 작품이 입증하듯이 그는 다방면에서 백과사전적 지식을 겸비하고 그러한 지식을 작품 속에서 십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가 전문 분야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지식을 지녔을 것이라는 데는 회의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그가 작품에서 다루고자 하는 특정 분야들 예를 들면, 점성술 등에 있어서는 중세인들이 지녔던 상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지식을 지녔을 것으로 간주한다. 점성술에 관한 그의 관심은 다름 아닌 점성술이 지닌 시대적 의의에 기인한다. 초서 시대의 중세인들은 별자리 혹은 점성술의 영향력을 깊이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세인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초서는 점성술을 하나의 중요한 문학적 기제로 사용했을 것이다. 국내외 많은 현대어 역자들이 초서가 인용한 점성술에 관한 전문용어들 예를 들면,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등과 관련문구의 해석에 있어 오역, 탈역, 축역(縮譯)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역자들의 역서를 중심으로 해석상의 차이를 검증하며 동시에 인용된

* 본 연구는 201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용어와 문구들에 관한 최적의 해석을 시도하여 초서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점성술, 별자리의 상대적 위치, 별자리의 원래위치, 태어날 때 별자리 위치, 보편적 도덕률

I. 서론

초서의 번역은 중세어라는 특수한 언어에 입각한 고증번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의 완역본 출간은 그 나라의 학문적. 문화적 수준을 가늠해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뉴 초서 소사이어티(New Chaucer Society)의 조사에 의하면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완역본을 출간한 국가는 겨우 19개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1]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박진만 선생님의 『캔터베리 이야기』 (*The Canterbury Tales*) 완역본을 필두로 다수의 축약본이 나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이동일과 이동춘 교수의 『캔터베리 이야기』 가 출간되었다. 각 번역본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지만 중세어라는 고전어에 입각한 고증 번역의 차원에서는 되짚어 볼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대영어의 어원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중세영어는 초서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전환하게 된다. 그가 사용한 비유, 반어, 우의적 표현 등에 사용된 언어의 정확한 의미 해석은 초서 문학을 이해하는데 필수 요건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중요성은 초서 자신이 작품 속에서 직접 언급한 *figure of speech* (*The General Prologue* 499)라는 말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렇듯 초서의 언어는 일차적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 고찰은 초서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중세영어는 많은 경우 이전의 고대영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상 중세영어 어원연구는 고대영어 어원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할 수 있겠다. 초서 번역은 이러한 어원에 입각한 번역을

포함하여 중세라는 다양한 시대상에 관한 지식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히 학술번역이라 지칭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의 주된 소재이며 자주 인용되는 점성술 관련 용어와 문구들이 현대역자들에 의해 어떻게 옮겨졌는지 살펴 볼 것이다. 아울러 역자들이 현대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랑과 생리학에 연관된 어휘들도 검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역자들 사이의 존재하는 어원적, 문법적, 의미론적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며 동시에 중세영어의 원의미와 중세 점성술에 기초한 고증학적 검증을 거쳐 초서가 의도한 의미에 가장 적합한 해석을 시도하고 자 한다.

II. 본론

초서가 인용한 점성술의 경우 많은 이야기에서 수없이 인용되는데 「시골지주의 이야기」 (“The Franklin’s Tale”)에서는 이러한 중세인들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선 고도의 전문적인 용어와 함께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점성술에 관한 그의 지식이 제법 그럴싸한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 주며 전문서적을 탐독하고 나름대로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초서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점성술을 언급하고 있는데 때로는 간략하게 하나의 용어만 인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운명. 골상학. 사랑 등과 연계하여 이야기 구성의 주된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빈슨(F. C. Robinson) 교수가 지적한 대로 초서의 점성술에 관한 지식은 정교한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게 된다(830).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중세인들이 지녔던 상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지식을 지녔을 것으로 간주된다. 점성술에 관한 그의 관심은 다름 아닌 점성술이 지니는 시대적 의의에 기인한다. 초서 시대의 중세인들은 별자리 혹은 점성술의 영향력을 깊이 의식하고 있

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세인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초서는 점성술을 하나의 중요한 문학적 기제로 사용했을 것이다. 작품 속에서 종종 발견 되는 점성술에 관한 불확실한 요소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가 식자인체 하는 위선자의 면모를 보이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서가 그러한 속물근성을 지녔다면 그는 동시대 지식인들이 사용했던 라틴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가 이야기에 사용한 중세영어 역시 자신이 교육 받고 자란 궁중의 말투가 아닌 평범한 중세인들의 말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친숙한 언어를 통해 일반 청중 혹은 독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려는 초서의 겸허한 태도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소박하고 겸허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초서는 이야기 전개에서 자신의 전문지식들—예를 들면, 점성술. 의학. 연금술, 신화. 고전학 등—의 분야를 인용할 때는 과감하게 그리고 자신의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세밀하게 나열하는 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가 자주 인용한 점성술에서 두드러진다.

II-i. 점성술 전문용어의 재해석: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중심으로

초서의 점성술에 관한 언급은『캔터베리 이야기』의 시작인 「총서시」(“The General Prologue”)의 7행에 언급되는 12자리 천궁도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백궁좌(Ram)서부터 시작되어「기사이야기」(“The Knight’s Tale”)와「시골지주의 이야기」 등을 포함하여 작품 전체에 편재되어 있다. 초서의 점성술에 관한 언급은 단편적인 인용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이야기의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용어가 인용된다. 이러한 전문성은 「기사이야기」의 앞 부분에서 언급되는 점성술에 관한 세 가지 용어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전문용어에 대한 해석은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된다. 이야기 속에서 점성술은 이야기 속의 주제 인 운명. 사랑. 우정. 죽음 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기 때문에 커다란 비중을 지니게 된다. 작품에서 연적인 아르시테와 팔라몬은 흔히 주정

주의자와 주지주의지로 분리된다. 이러한 주요 인물들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운명관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들의 운명에 대한 견해 외에도 「기사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모두 한결같이 이 운명의 사슬에 얽혀있으며 운명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운명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작품 속 주인공--아르시테, 팔라몬, 테세이우스 등--들 대부분이 고전적 의미인 운명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 이 운명이 이야기 속에서 점성술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Fortune hath yeven us this adversitee,
Som wikke aspect of disposicioun
Of Saturne, by some constellacioun,
Hath yeven us this, although we hadde it sworn;
(although we had sworn to the contrary) (*KT* 1086-90)[2)]

[이 50: 운명의 여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역경을 내리셨네, 싸투루누스 별의 사악한 운행에 의해 우리가 이와 같은 불행에 빠진 것이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맹세한다 할지라도 말일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별자리는 그렇게 잡혀졌네, 참을 수밖에 도리가 없지, 그게 전부야.”]

[김 39: 제발 우리의 처지를 참아야 하네... 운명의 여신이 우리에게 이 재난을 내리신 것을, 싸투르누스 별의 불길한 상이나 또 어떤 흉성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것을 아무리 저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우리가 태어났을 때 벌써 굴러 먹은 걸. 참아야지.]

[송 54: “이런 고통은 행운의 여신이 준 선물이야. 사투르누스 별과 다른 나쁜 별자리의 흉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하더라고 헛수고일 뿐이야.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이런 별자리의 운명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런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David 28: Fortune has dealt us this adversity: Some malign aspect or disposition. Of Saturn in some adverse position/ has brought it on us: nothing's to be done: It stood thus in our stars when we were born; the long and short of it is this: 'Endure']

[Coghill 48: Fortune has given us this adversity, Some wicked planetary dispensation, Some Saturns's trick or evil constellation/ Has given us this, and Heaven, though we had sworn]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 다음의 몇 가지 요소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 째는 행운의 여신으로 불리는 *Fortune* 과 그리스 신화에서 다루어지는 최고의 신(神)인 사투르누스(Saturne)의 관계설정이다. 본문의 엄밀한 의미론적 분석에 따르면 인간에게 불행을 제공하는 일차적 원인은 행운의 여신이다. 이어서 이러한 불행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수반되는데 바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투르누스와 그에 수반되는 별자리의 운행에 관한 언급이다. 다시 말해 인간사에 불행을 초래하는 사투르누스의 운행이 행운의 여신에 종속되어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리스 신화와 중세의 별자리 점성술을 혼합한 개념으로서 현대역자들의 이해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둘째는 점성술의 전문용어에 해당하는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의 정확한 해석이다. 세 번째는 *aspect*와 *disposicioun*은 분명히 사투르누스의 별자리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어서 언급되는 *constellacioun*이 별도의 항성(행성)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투르누스의 위치를 말하는 것인지 본문의 문법적. 의미론적 차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중세 점성술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추론하여 본문과 어떠한 차이를 이루는지 검증하는 것도 본문의 이해와 더불어 초서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 국내외 현대 역자들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스피어링(A. C Spearing)은 *Fortune*을 어떤 개인의 힘으로 간주하며 여인이 끊임없이 수레바퀴를 돌리는 모습을 투영한다(52). 이러한 견해는 로빈슨의 '의인화된 행운, 운명'과 일치한다(로빈슨 1250). 일반적으로 fortune은 '운, 우연, 인간의 운을 통제하

는 힘, 변덕의 여신'의 의미를 지닌다(*CG* 62). *Fortune* 의 해석에 있어서 국내역자들은 '행운의 여신' 과 '운명의 여신'으로 옮기고 있어 원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운명의 여신과 사투르누스의 관계에 대해서 국내외 현대 역자들은 같거나 비슷한 견해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불어 닥친 역경 혹은 불행은 행운의 여신의 조화(造化)로 발생한 것이라는데 일치하며 이어서 이러한 불행의 원인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투르누스가 언급된다. 본문의 문법적 구조를 살펴보면 초서 자신도 운명의 여신과 사투르누스의 관계에 대해 다시 말해, 누가 인간 불행의 제1원인자 인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명'이나 '운명의 여신'은 점성술이 활성화 된 중세 이전의 그리크 로마 시대의 고전적 개념에서 유래한다. 반면 세세한 별자리 용어와 함께 등장하는 사투르누스는 분명 중세 점성술의 유산이기 때문에 인간운명의 제1원인 혹은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말할 때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현대역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연관성 보다는 원저자인 초서의 의중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문맥에서 다루어지는 문법적. 의미론적 요소들에 집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본문에서는 사투르누스가 '운명의 여신'에 종속되어 있다는 인상을 풍기지만 같은 이야기 속에서 다루어지는 사투르누스는 '운명의 여신'과 무관하며 인간이 겪게 되는 역경과 불행의 제 1원인자로 묘사되어 진다.

> My cours, that hath so wyde for to turne,
> Hath moore powre than woot any man
> .....
> Myn is the prison in the derke cote
> I do vengeance and pleyn correccioun,
> Whil I dwelle in the signe of the leoun. (*KT* 2453-78)

> [나의 운행궤도는 너무도 광대하여 나의 힘의 영역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단다. 저 음산한 바닷 속에 사람을 빠져 죽게 하는 일이나, 어두운 감옥 속에 사람을 가두는 일, 사람의 목을 죄거나 매달아 죽이는 것도 나의 일이며, ... 내가 사

자궁에 있으면 복수도 하고 처벌도 감행할 수 있다. ...또한 온갖 불치의 병들이 내게서 나오고 악의에 찬 배신과 오랜 음모도 나의 수중에 있으며...]

실제로 「기사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투르누스는 최상의 신으로서 하급 신인 군신 마르스와 비너스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신들에 의해 통제 받는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기사이야기」 에서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당한 자는 아르시테이다. 그런데 그의 불행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행운의 여신이 돌리는 수레바퀴의 정점에 도달하여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고 사투르누스가 아르시테의 말을 놀라게 하기 위해 보낸 *furie infernal*에 의해 죽게 된다. 이와 같이 사투르누스의 독자적인 역할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지만 1086-90행에서 보여 지는 사투르누스의 모습은 스피어링이 지적한대로 '운명의 여신의 대리역할 혹은 운명의 여신의 조화를 설명하는 역할'로 비쳐지고 있다(54).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현대역자들은 일관되게 「기사이야기」 에서 다루어지는 사투르누스의 역할에 대해 전체적인 조망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인 해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2453-78 행의 번역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점성술에 관한 전문용어인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의 정의와 이들과 사투르누스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일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초서가 언급한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의 원의미를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말 역자들은 이 세 용어에 대한 개별적 해석을 시도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이) '사악한 운행' (김) '별의 불길한 상' (송) '나쁜 별자리' 와 같은 의역과 축역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략적인 번역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무난한 해석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인 초서가 이 세 용어를 나열했을 때는 나름의 의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별 해석은 초서가 인용한 점성술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반면 현대영어의 대표적 역자로 알려진 데비드와 코그힐은 중세 점성학에서 말하는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에 관한 부연 설명이 없이 현대영어와 큰 차이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데비드의 경우 '우리가 태어날 때의 별자리'(stars when we were born)를 언급하고 있어 점성술에서 말하는 *constellacioun*의 의미를 부

분적으로 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피어링은 *aspect*에 대해 '항성들 간의 상대적 위치 혹은 지구와 상관된 위치'라고 주장한다(159). 반면 *CG*는 '항성의 배치나 배열' 정도로 간략하게 정의한다. *Disposicioun*의 정의에 있어서 스피어링은 '항성이 천체에서 차지하는 원래 위치'를 *CG*는 '항성의 배열과 항성의 영향력'을 로빈슨은 '항성의 배열'로 간주하여 현대영어 disposition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 *constellacioun*에 있어서 스피어링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항성의 위치'를 말하며, *CG*는 '태어날 때의 별자리 의미와 함께 특정 항성의 상대적 위치'로 정의한다. 로빈슨은 '천체 별자리의 상대적 배열'로 정의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 로빈슨은 '사투르누스 항성의 사악한 배열(별자리)에 의해, 천체의 항성들의 배열에 의해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네'로 풀이하고 있다(40). 세 용어의 개별적 정의에 국한하지 않고 사투르누스와 천체의 별자리의 영향으로 인해 인간이 불행을 겪고 있다는 로빈슨의 해석 역시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략적인 번역의 효율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 Som wikke aspect of disposicioun
> Of Saturne, by some constellacioun, (1087-88)

이 부분을 문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aspect* 는 *disposicioun* 과 동격의 위상을 지니기 때문에 스피어링이 정의한 독자적 의미인 '상대적 위치'나 '항성의 원래 위치'들의 의미와는 많은 차이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동격은 저자인 초서가 두 용어의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실수로 삽입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 큰 난제는 다음에 언급되는 '태어날 때'의 별자리를 지칭하는 *constellacioun*이 앞의 사투르누스의 고유한 별자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체의 또 다른 별자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투르누스를 포함한 항성들의 별자리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다시 말해 인간사의 불행을 제공하는데 있어 앞의 '운명의 여신'을 제외하고

사투르누스가 독자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성의 개입을 의미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의 구분에 있어 국내 역자들은 각각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간의 불행에 사투르누스 외에 다른 항성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다. 반면 (김) '또 어떤 흉성 때문에' (송) '다른 나쁜 별자리의 흉계'에서 보여지듯이 사투르누스 외에 별도의 별자리를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로빈슨의 'by arrangement of heavenly bodies (천체 항성들의 별자리)와 일치함을 보여준다(40). 반면 현대영어 역자들은 공히 '또 다른 별자리'를 고려하지 않고 사투르누스만의 불행한 별자리로 풀이하고 있다.

(David) Of Saturn in some adverse position (악영향을 끼치는 사투르누스의 별자리)
(Coghill) Some Saturns's trick or evil constellation (사투르누스의 사악한 별자리)

하지만 인간의 불행을 관장하는 사투르누스의 독보적인 역할을 고려할 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다른 항성의 별자리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면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는 모두 사투르누스를 지칭하기 때문에 의미론적 측면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즉, 스피어링의 세 가지 정의 '상대적 위치(*aspect*)', '원래 위치(*disposicioun*)', '태어날 때 위치(constellacioun)' 를 참조하고 이 세 가지 별자리가 모두 사투르누스의 별자리를 지칭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론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즉,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세 위치 중 사투르누스가 어디에 위치할 때 인간이 불행을 겪게 된다는 말인가?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는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별자리를 지칭하기 때문에 문맥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불행이 사투르누스가 '상대적 위치'에 자리할 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위치'에 있을 때 인지 아니면 '태어날 때'의 별자리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게 된다. 물론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모두를 사투르누스 별자리를 지칭하는 동의어로 간주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피어링을 비롯한 학자들은 이 세 용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다. 아마도 초서는 다음과 같은 해

석을 염두에 두고 세 용어를 인용했을지 모른다. 사투르누스가 '원래 위치'를 지니고 있을 지라도 그러한 '원래 위치'가 다른 항성과의 거리를 고려하면 '상대적 위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한 '태어날 때'의 위치 역시 사투르누스의 '원래 위치'와 일치 할 수 있다는 가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르게 된다. 즉, 사투르누스의 별자리가 다른 항성의 운행(별자리)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사에 불행을 끼치게 된다는 해석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를 둘러싼 사투르누스의 역할에 관한 해석은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자의 입장에서는 문맥에 맞는 최적의 번역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Aspect* 와 *disposicioun*의 고증학적 의미에 입각하며 특히 스피어링의 견해를 참조하여 직역을 고수한다면 다음과 같은 역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투르누스의 사악한 별자리의 운행에 의해, 그가 태어날 때 사투르누스가 차지한 사악한 별자리의 위치에 의해 ...'로 옮기고 아울러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에 관한 상세한 해설을 별도로 첨부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학술 번역의 면모를 지닐 것으로 간주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이와 같은 해설 번역의 필요성은 「시골지주의 이야기」에서 더욱 요구되어 진다.

II-ii. 별자리 계산에 인용된 용어의 재해석

Fortune 과 사투르누스의 별자리를 둘러싼 해석의 어려움이 점성술과 연관된 전문 용어의 정의를 넘어서 문맥에 얽혀져 있는 명확한 의미의 정립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달리 「시골유지의 이야기」에서 다루어지는 점성술에 관한 번역의 어려움은 다양한 점성술 용어의 적확한 의미 설정에 있게 된다. 총 17행에 달하는 아래의 인용 문구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무려 16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거의 모든 행이 한 개 이상의 전문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기사 이야기」와 달리 실제로 점성술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계산법이 언급되기 때문에 점성술에 관한 초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대 역자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축약

과 탈역 때론 오역을 범하고 있어 초서가 의도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술 번역의 의의를 지닌다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역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이 정립한 용어에 관한 정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번역에 반영한다면 의외의 학술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His tables Tolletanes forth he brought,
Ful well corrected, ne ther lakked nought,
Neither his **collect** ne his **expans yeeris,**
Ne his **rootes,** ne his othere geeris,
As been his **centris** and his **argumentz**
And his **proporcioneles convenientz**
For his **equacions** in every thyng.
He knew ful wel how fer **Alnath** was shove
Fro the heed of thilke **fixe Aries** above,
That in the **ninth speere** considered is;
Ful subtilly he kalkuled al this.
Whan he hadde founde his **firste mansioun,**
He knew the remenaunt by **proporcioun**,
And knew the arisying of his moone weel,
And in whos **face**, and **terme**, and everydeel;
And knew ful weel the **moones mansioun**
Acordaunt to his operacioun, (*The Franklin's Tale* 1273-90)

[이 367-68: 그는 새로이 수정된 톨레도의 점성판을 꺼냈다. 그에게는 실로 부족한 것이 없었다. 장단기 동안(1년과 20년 동안의 행성이 위치한 도표)의 행성의 운행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날짜표가 준비돼 있었고, 그 외 행성들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위치도, 행성들의 위치를 재는 각도계 등과 같은 갖가지 기구들이 있었다. 또한 천공의 등분에 필요한 항성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계산표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항성권을 계산해서, 알나스가 제 9구에서 관측되는 고정된 백양궁의 꼭대기에서 얼마나 움직였는가를 정확히 알아냈고, 이 모든 것을 능숙하게 계산해

냈다. 그는 먼저 달의 첫 번째 수를 알아내고 나머지 이십칠수도 비례에 의해 풀어냈다. 또한 달이 언제 떠오를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했고 십이궁에 위치한 각 항성과의 관계를 비롯한 여타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아냈다.]

[송 369: 그는 최근에 수정된 톨레도의 점성표를 꺼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행성들의 움직임을 적은 표와, 계절을 보다 세밀히 구분한 표, 계산의 기초가 되는 날짜를 측정하기 위한 황경과 항성의 위치표를 꺼냈습니다. 각도계와 행성들의 움직임을 비례적으로 측정하는 표를 비롯하여 모든 계산도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8구의 움직임으로 지금은 제 9에 있는 알나스가 위쪽 양자리의 꼭대기에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춘분점 세차의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도 노련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달이 스물여덟 자리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음을 알고, 나머지를 비례법에 의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언제 보름달이 뜰 것이며, 그러면 무슨 행성과 관련이 있으며, 12궁의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지를 비롯한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달이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지를 비롯한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달이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자기의 실험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비롯해, 이런 환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나머지 의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246: 몇 해의 짧은 기간의 계산을 위한 표가 있고, 또 오랜 세월을 풀이하는 표도 있었다. 황경이나 항성의 위치를 재는 기구며, 각도계며, 별의 운행의 비례를 재는 기계 따위, 모든 계산 도구가 구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항성권을 계산해서 아르나스가 천계의 최고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백양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세밀하게 알아냈고, 이 모든 것을 교묘하게 계산해 냈다. 그는 먼저 별의 위치를 측정하고, 나머지는 그 별과의 비례로써 풀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달이 열 두 궁 중의 어느 궁에 있는가, 또, 몇 도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를 귀신같이 알아냈다. 그는 달의 당시의 위치가 그의 목적에 꼭 알맞다는 것을 알고, 그 옛날의 이교도들의 습관인 환상과 요술을 자아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세밀한 관찰을 모조리 마쳤다.]

[Coghill 441-42: And so at last the favoring hour was found/ To do his tricks and wretched exhibition Of that abominable superstition. His calculating tables

were brought out Newly corrected(he made sure about The years in series and the single years To fix the points the planets in their spheres Were due to reach and so assessed their 'root' In longitude) and other things to suit, Such as his astrolabe, and argument From arc and angle, and was provident Of fit proportionals for the minor motion Of planets, and he studies with devotion, Measured from the point where Alnath swam In the eighth spehere, to where the head of the Ram Stood in the ninth, in its eternal station, and made his calculation, And finding the first mansion of the moon, He calculated all the rest in tune with that. He worked proportionally Knowing How she would rise and wither she was going Relative to which planets and their place.]

[David 323-24: He brought out his newly corrected Toledan tables of astronomy and everything he needed- tables for the motion of the planets for round periods, and tables for subdivisions of periods, and longitudes for given dates to furnish bases for calculation; and all his other paraphernalia, such as his centres and angles of calculation; and his tables of proportionals for computing planetary movements so that he could make all his equations. By the motion of the eighth sphere he knew exactly how far Alnath had moved from the first point of the sign Aries overhead, which is deemed to be in the ninth sphere; all this - the exact amount of the precession of the equinoxes - he had expertly calculated. Having found the moon's first mansion he was able to compute the rest proportionally, and tell when the moon would rise and in what relation to the planets and their places in the zodiac, and all the rest of it. he knew exactly which mansion of the moon was appropriate for his experiment, also all other ritual ceremonies necessary for such illusions, and other evil practices employed by heathen folk in those days.]

1275행의 *collect*는 로빈슨과 *CG*에 의하면 '20년을 주기로 관찰되는 항성의 위치로써 천문도표 상에 표시된다'(로빈슨 899, *CG* 24). 반면 *expans yeeris*는 '천문도표 상에 표시되는 항성의 1년 주기 위치를 말한다'. *Collect* 와 *expans yeeris* 의 해석에 있어서

(이)와 (코그힐)은 학술적 정의에 충실하고 있는 반면, (김), (송), (데비드) 경우 의역과 축역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역과 축역이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자인 초서가 고도의 전문용어를 굳이 고집하면서까지 인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전문 용어에 대한 해설이나 풀이가 병행되어야 할 걸로 간주된다.

1276행의 *rootes*는 '항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데 근간이 되는 천문도표를 처음 작성하는 날짜를 지칭한다'(로빈슨 899). *CG*에 따르면 *root*는 '특정한 날짜에 붙여진 기수(radix)로써 다른 날짜와 상응하는 양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고 정의한다(*CG* 123). (이)와 (김)의 경우 용어의 세부적인 내용을 풀어쓰지 않고 개략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빈슨이나 *CG*의 정의를 고려한다면 (데비드)의 '황도좌표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날짜'나 (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날짜를 측정하기 위한 황경과 항성의 위치표' 가 나름의 해설 번역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데비드)와 (코그힐) 그리고 (송)의 경우 공히 '황경, 황도좌표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황도와 춘분점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빈슨 '항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데 근간이 되는 천문도표를 처음 작성하는 날짜' 나 *CG*에서 정의하는 '특정한 날짜에 붙여진 기수(radix)로써 다른 날짜와 상응하는 양을 계산해낸다'와는 거리가 있는 확대해석으로 간주된다.

1277 행의 *centris*는 '적도의 어떤 위치들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는 천문도표' 나 '적도점에 위치한 항성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는 도표'를 의미한다(로빈슨 185, *CG* 21). *Argumentz*는 '항성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각도계'를 의미하는데 역자들은 공히 공통된 해석을 가하고 있다. *Centris* 해석에 있어 우리말 역자들은 별도의 해석을 생략한 채 *argumentz* 와 묶어서 '위치도', '각도계'로 정의하고 있다. (코그힐)은 '천체 관측기(astrolabe)', '각도계'로 (데비드) 역시 *centris*에 관한 개별 해석을 달지 않고 '각도계'로 옮기고 있다. 현대 역자들이 간과한 *centris*의 개별 의미는 별도의 해설을 첨가하는 형태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1278 행의 *proporcioneles convenientz*는 '항성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천문도표'를 의미하는데 현대역자들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1279행의 *equacions*은 '천공의 균등한 부분인 궁(宮)'을 의미한다(*MED*, 로빈슨 185, *CT* 48). (이)는 '천공의 등분'으로 옮기고 있지만 (송)과 (김)은 이 부분의 해석을 빠뜨리고 있다. (데비드) 와 (코그힐)은 'proportional(비례)'로 옮기고 있는데 이는 원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번역으로 간주 된다.

1380-82행의 *Alnath, fixe Aries ninth speere* 해석에 있어 로빈슨은 '제 9구에 있는 고정된 백양궁의 꼭대기와 제 8구에 있는 알나스(알파 양자리) 사이의 거리를 관측함으로써 얻어지는 주야평분점'을 제시한다. 로빈슨의 해석에 준하여 현대역자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이),(데비드),(코그힐)의 번역이 가장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리고 그의 항성권을 계산해서, 알나스가 제 9구에서 관측되는 고정된 백양궁의 꼭대기에서 얼마나 움직였는가를 정확히 알아냈고'. (김) '천계의 최고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백양궁'은 오역에 속하며 (송)의 '제 8구의 움직임으로 지금은 제 9에 있는 알나스' 역시 오역으로 간주된다. (김) 과 (송)의 경우 제 8구와 제 9구에 있는 백양궁과 알파 양자리인 알라스의 해석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송) '그는 제 8구의 움직임으로 지금은 제 9에 있는 알나스가 위쪽 양자리의 꼭대기에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정확하게 알아'를 '제 8구에 있는 알나스가 제 9구에 있는 양자리에서 얼마나 움직였는가(*shove*: 나아가다) 혹은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 알아냈고'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제 8구와 제 9구는 알나스와 양자리의 고유 영역인 점을 감안하면 위치의 중복성은 원문의 이해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김) '그리고, 항성권을 계산해서 아르나스가 천계의 최고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백양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세밀하게 알아냈고'에서 알 수 있듯이 *ninthe speere* 를 '천계의 최고 위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MED*의 the Primum Mobile(제 10천)을 참조한 역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the heed of thilke fixe Aries* 원문을 고려하면 '고정된 백양궁의 꼭대기', 즉 '제 9구'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제 9구에 있는 '백양구의 꼭대기'를 '천계의 최고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백양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85 *mansioun* 은 달의 위치를 말하는데 특히 '달의 매일 위치'를 지칭한다(*CG* 93). *His first mansioun*은 알나스라 불리는 달의 첫 번째 궁을 의미한다.

(이), (송), (데비드), (코그힐) 모두 '달의 첫 번째 수 혹은 궁(宮)'의미로 해석하고 있어 원의미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CG*에 의하면 *mansioun*은 '달의 매일 위치' 를 지칭하기 때문에 *first mansioun*의 더욱 정확한 번역은 '달이 매일 차지하는 자리 중 첫 번째 위치'가 될 것이다. (김)의 경우 '달이 열 두 궁 중 어느 궁에 있는가' 로 옮기고 있어 *first mansioun*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88행의 *face*는 천문 12궁도(zodiac)를 구성하는 세 부분 중의 하나로서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특정한 항성이 할당되어 있다. *Terme* 역시 12궁도를 구성하는 세 부분 중의 하나로 특정한 항성이 배정되어 있다. 하지만 로빈슨에 의하면 *terme* 는 *face* 와 달리 균등한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 (로빈슨 185, *CG* 151). 대체로 현대어 역자들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face* 와 *terme*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함으로 해설 번역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차이점을 전달하는 것이 학술 번역의 의의라 간주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자세한 해설이 첨가되지 않는 한 중세점성술과 연관된 고도의 전문용어들에 대한 이해는 매우 어렵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중세점성술과 연관된 용어들의 의미가 파악되었으므로 역자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독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번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점성술 외에도 초서는 전문성을 지닌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기사이야기」에 인용되는 몇 개의 어휘는 번역의 정확도를 위해 검토할 필요성을 지닌다.

II-iii. *Positif lawe*의 재해석

'who shall yeve a lovere any lawe?'
Love is a gretter lawe, by my pan,
Than may be yeve to any erthely man;
And therfore **positif lawe** and swich decree

Is broken al day for love in ech degree
A man moot nedes(must necessarily) love,
maugree his **heed**
He may not fleen it, thogh he sholde be deed,
Al be she maybe, or wydwe, or elles wyf. (*KT* 1164-71)

[이 52: 한 말을 생각해보게. 사랑은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어떤 법이 사랑의 열정에 빠진 자를 속박할 수 있단 말인가? 단연코 사랑이야말로 지상의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법이지. 그런고로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람이 만든 법이나 규정들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매일매일 깨뜨려지는 것이지. 머리속에 어떤 고상한 생각이 들어있다 해도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지, 상대가 처녀이든 과부든 혹은 결혼한 부인이든 상관없이 일단 사랑에 빠지면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헤어 나올 수 없네.]

[김 40: 사랑은 무법이라 했지. 진정, 사랑이 보다 더 위대한 법률, 인간의 법으로 이 법보다 더한 것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기에 사람이 만든 법이며 계율이며 하는 부질없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만인이 매일같이 깨뜨리고 있는 거야.]

[송 56-7: 누가 연인에게 법을 강요하겠는가? 옛 성현의 속담도 들어보지 못했니? 맹세코 말하건데 사랑은 인간들이 만든 법이나 계율보다 훨씬 강한 법칙이야. 따라서 사랑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이 만든 법이나 계율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매일 깨뜨리고 있어. 사람이 사랑할 때는 이성이 소용없는 법이야. 한번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과부이든 처녀이든 유부녀이든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피할 도리가 없어.]

[Coghill 50: “Who ever bound a lover by a law?"/ Love is law unto itself. My hat!/ What earthly man can have more law than that?/ All man-made law, all positive injunction/ Is broken every day without compunction/ For love. A man must love, for all his wit; There's no escape though he should die for it, / Be she a maid, a widow or a wife.]

[David 30: "All's fair in love and war"/ Love is a mightier law upon my soul./ Than any made by any mortal rule;/ For love, all man-made laws are broken by/ Folk of all kinds, all day and every day. A man is bound to love against all reason./ Though it should cost his life, there's no escaping,]

(김)의 경우 원문의 자구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 내용을 뭉뚱그려 해석하고 있으며 1165행의 *by my pan*(upon my soul, by my skull), '단연코' (이) '맹세코'(송) 와 1169-70 행의 *A man moot nedes(must necessarily) love, maugree his heed* 를 빠뜨리고 있다. 이 구절의 해석에 있어 (이)는 '머리 속에 고상한 생각이 들어있다 해도', (송)은 '이성이 소용없는 법이야'로 옮기고 있다. *Heed* 의 해석에 있어 (데비드)는 'all reason'을 (코그힐)은 'all his wit'로 해석하여 '제 아무리 머리를 써 봐도'로 옮기고 있다. 이 구절의 해석에 있어 *CG*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로 옮기고 있는데 로빈슨 역시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이처럼 국내외 역자들이 *heed*의 해석에 있어 '머리 속 생각, 이성, 위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세어 *heed*의 또 다른 의미인 'take care' 보다는 일차적 의미인 'head, brain'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heed*가 *maugree*(in spite of) 와 함께 구로 사용될 때는 로빈슨과 더글라스가 제시한 'despite his care, in spite of all he could do' (제 아무리 노력해도, 별짓을 다해 봐도)가 더 적합한 해석으로 간주된다.

A man moot nedes(must necessarily love 1169)의 번역에 있어 (코그힐)과 (데비드)의 경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지'로 옮기고 있다. 반면 (김)과 (송)의 경우 내용이 아예 빠져있거나 의역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의 번역에 있어 가장 주의가 요구되는 해석은 *positif lawe*이다.「기사이야기」가 에밀리를 놓고 벌어지는 삼각관계를 다루는 사랑이야기인 만큼 사랑과 연관된 어휘 해석은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된다. 1167행의 *positif lawe* 의 의미에 대하여 (코그힐)과 (데비드)는 '인간이 만든 법', *CG*는 '규정된 법' 벤슨은 '제정된 법'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스피어링과 로빈슨은 'natural law' 에 반하는 'human law'

의 개념을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중세영어 *nature*는 '본능'의 의미를 지닌다(*CG* 100)

스피어링과 로빈슨은 nature에 내포되어 있는 '본능'을 의식하고 natural law—자연의 법이 아닌 본능의 법(힘)—를 사용했을 것이다. 1164-71에서 다루어지는 사랑의 속성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리비도와 같은 인간의 이성적 통제 밖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힘'의 성향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natural law는 '인간의 본능적인 힘'이 될 것이며 이에 반하는 '인간이 만든 법'인 *positif lawe*는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되는 에고(ego)의 영역에 속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 경우 *positif lawe*를 국내외 역자들이 사용한 '인간이 만든 법' 으로만 받아들일 경우 초서가 의도한 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우리말 번역의 경우 '인간이 만든 법이나 규율'은 명문화된 법률 규정을 연상케 함으로 '본능에 반하는 힘' 혹은 '이성에 의해 통제되는 힘(법)'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Positif lawe*에 대해 초서는 아마도 인간의 도리 혹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의 의식 속에 자리 잡혀 있는 무정형의 보편적 도덕률을 암시했을 것으로 간주된다. 로빈슨과 스피어링이 적용한 '자연의 법칙'을 참조하고 본문의 맥락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대안 번역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능에 입각한 사랑의 힘에 의해 보편적 도덕률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매일 매일 깨지게 된다'.

II-iv. 체액설과 생리학 용어의 재해석

And in his geere for al the world he ferde
Nat oonly lik the loveris maladye
Of Hereos, but rather lyk manye,
Engendred of humour malencolik
Biforen, in his celle fantastik. (*KT* 1372-76)

[이 56: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이처럼 달라진 모습은 에로스의 화살에 맞아 사랑의 중병에 고통 받고 있는 연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앞이마에서 분비되는 흑담즙 체액의 기운에 의한 미치광이의 행동과도 같았다.]

[김 44:- 그리고 그는 온 세상의 눈앞에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상삿병의 환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치광이로 비치었고, 체내에 흑담즙이 발광한 환자로 행동했다. 다시 말하면, 이 실연의 기사 아르시트는 습성과 성품이 완전히 뒤집혀서 딴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송 62: 그의 행동은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마치 상상력이 자리잡은 머리 앞 부분에 우울증 체액이 고여 발광한 사람 같았습니다.]

[David 31: As for his he went about for all the world as though he were not merely suffering from lovesickness but actual mania engendered by some melancholic humour in the forehead, where the imagination has its seat.]

[Coghill 56: So feeble were his spirits and so low. And changed so much, one could not even know Him by his voice; one heard and was in doubt, And so for all the world he went about. Not merely like a lover on the rack Of Eres, but more like a maniac In melancholy madness, under strain Of fantasy- those cells that front the brain.]

*Fantastik*를 ‘공상’ 또는, ‘환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상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역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로빈슨은 ‘상상력’을, *CG*는 ‘환영’ 이나 ‘상상력’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공상’ (송)은 '상상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데비드)는 ‘imagination’을 (코그힐)은 ‘fantasy’로 옮기고 있다. 본문은 아르시테가 상사병에 걸려 반미치광이가 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상상력’의 의미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매우 혼란스럽고 헛 것이 보이는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상’ 또는 ‘망상’, ‘환상’의 의미가 적절 할 것 같다. 더욱이 ‘상상력’은 정상적인 사람도 빠질 수 있는 정신 상태인 점을 감안하며 ‘상상력’은 문맥에 합당하지 못한 해석으로 간주된다. 중세의 생리학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부분은 ‘상상, 공상, 환상’(phantasy), 중간부분은 이성(reason), 뒷부분 후두부는 기억력(memory)과 관련된다(스피어링 165), 다행이 (김)을 제외한 국내외 역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 중세생리학의 배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머리의 세 부분의 기능에 대한 중세의 견해를 해설로 첨부하면 더욱 바람직한 번역이 될 걸로 간주된다. 1375행은 흑담즙 체액의 과다 또는 분비로 인해 아르시테가 상사병에 걸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흑담즙 체액이 머리 앞부분에서 생성되는 건지 아니면 몸의 다른 부분에서 생성되어 이마에 저장되는 것인지 역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ngendred*는 스리어링에 의하면 ‘produced’의미를 *CG*와 *MED*에 의하면 ‘caused, beget, produce’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국한한다면 흑담즙 체액은 앞 이마 부분에서 생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데비드는 ‘마의 앞 쪽에 있는 흑담즙 체액에 의해 병에 걸리게 되었고’(actual mania engendered by some melancholic humour in the forehead)로 옮기고 있는데 코그힐 역시 흑담즙 체액이 어디서 생성이 되었는지를 알리지 않고 이 체액으로 인해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풀이하고 있다. 스피어링은 인간의 기운은 흑담즙을 포함한 몇 개의 체액(fluids)에 의해 조정되는데 이 체액들은 피에 의해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된다고 보고 있다(165). 스피어링의 견해를 참조하면 흑담즙이 앞이마에서 생성된다는 해석은 이론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초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 심도 있는 고증학적 작업이 요구되어진다.

1372행 *And in his geere for al the world he ferde* 의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되는 어휘는 *ferde* 이다. 로빈슨과 *CG*, (이)는 ‘행동했다, 태도를 보였다’(behaved)의 의미를 적용한 반면 (데비드), (코그힐), (송)은 ‘세상을 돌아 다녔다, 이리 저리 방황했다’ 로 옮기고 있다. *Ferde* 는 중세영어 *faren, (*go, depart)의 과거시제로써 ‘went’의 의미를 지닌다. 중세영어 *faren*은 고대영어 *faran*, (go, wander)에서 파생되며 과거형

은 *ferde*, (went) 의 의미를 지닌다(*BT*). 하지만 *faren*은 'behave'의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문맥에 맞는 의미를 택해야 할 것이다. 데비드와 코그힐은 *ferde* 의 해석에 있어 이러한 고대영어의 의미를 참조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앞 뒤 문맥을 살펴보면 더욱이 작품 속에서 상사병에 걸린 아르시테가 세상을 방랑하기 보다는 방에 갇힌 폐인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돌아 다녔다' 보다는 '그는 마치 미치광이처럼 행동했다'가 합당한 번역으로 간주된다.

III. 결론

중세의 이야기꾼인 제프리 초서는 당대의 문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라틴어를 고수하지 않고 모국어인 중세영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모국어 고집은 그가 성장한 상류사회의 풍류를 반영하기 보다는 평범한 중세인들을 겨냥한 그의 겸허하고 청중들과 호흡을 같이하고자 하는 친숙한 면을 엿 보게 하는 처사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서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여 현학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면모는 사용한 점성술 인용에서 두드러진다. 초서의 점성술에 관한 언급은 단편적인 인용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이야기의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용어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그의 지식은 「기사이야기」 의 앞부분에서 언급되는 점성술에 관한 세 가지 용어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점성술에 관한 그의 전문적인 지식은 「시골 지주의 이야기」 에서 더욱 구체화 된다. 초서가 언급한 일련의 용어들, 예를 들면 *centris, argumentz, mansioun, face, terme, eighte speere, proporcioneles* 등의 정확한 해석은 고증학에 입각한 학술적 배경이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난해한 전문 용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지 않고 번역을 시도할 경우 오역의 오류를 범하기 쉽고 자신감 상실로 인한 탈역과 축역 또는 대략적인 의역에 의존하게 된다. 초서 번역에 있어 영어권 이외의 역자들은 현대영어 번역본에 의존하여 번

역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부 현대영어 역자 역시 중세영어 원의미와 배경이 되는 고증학적 지식을 소홀히 하고 개략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특히 항성의 특별한 위치를 알리는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의 경우, 한 행성과 다른 별자리와의 상대적 위치를 지칭하는 *aspect*, 항성의 본래 위치를 알리는 *disposicioun*, 사람이 때어날 때의 별자리를 지칭하는 *constellacioun*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의 점성술에서는 한 행성의 위치도 엄격히 구별되어 사용되어진다. 물론 일반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행성의 위치 혹은 별자리에 의해 불행이 초래되고...'와 같은 개략적인 내용을 전하게 된다 해도 독자들의 이해 차원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초서가 구태여 이러한 전문 용어를 언급한 만큼 학술적 번역의 의의를 지닌다면 이에 대한 세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전문학 번역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해제 및 다양한 학술적 각주를 활용하는 해제 번역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본문에 전문용어에 대한 세세한 학술적 정의를 삽입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지닌 독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줄 모르나 일반독자에게는 학술도서의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본문에서는 상세한 해설은 줄이고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해설을 달아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Notes

1) 2014년 아이슬랜드 국제 중세학회에서 New Chaucer Society의 학회장인 Berry 교수가 저자에게 알려줌.

2) 인용된 중세영어 원문은 2008년 *The Riverside Chaucer* 3판에서 발췌했음.
   * *MED*는 다음의 중세영어사전을 의미한다: Henry, Bradley, *A Middle English* Dictionary, ed.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78. 이하 *MED* 로 표기함.
   * David Wright, 『*The Canterbury Tales*』 trans. Oxford: Oxford UP. 1986. Nevill Coghill, 『*The Canterbury Tales*』 tran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982. 김진만, 『캔터베리 이야기 쵸오서』 서울, 정음문화사 1984. 송병선, 『캔터베리 이야기』 서울, 책이 있는 마을, 2000. 이동일, 이동춘, 『캔터베리 이야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이하 (David), (Coghill), (이), (김), (송)으로 표기한다. (이), (김), (송)의 순서는 논지 전개의 편의를 고려했음. David 와 Coghill 의 경우 현대영어 번역문을 인용할 때는 영어이름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경우 우리말 역자들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데비드)와

(코그힐)로 통일한다.

* *BT*는 다음의 고대영어 사전을 의미한다: Joseph, Bosworth and T. Northcote Toller. *An Anglo-Saxon Dictionary*. eds. Oxford: Oxford UP, 1882-98.
* Glossary는 A Chaucer Glossary를 의미한다: *A Chaucer Glossary*. ed. by Norman Davis, Douglas Gray, Patricia Ingham, Anne Wallace-Hadrill. Oxford: At the Clarendeon Press, 1981. 이하 *CG* 로 표시한다.

인 용 문 헌

김진만. 『캔터베리 이야기 쵸오서』. 서울: 정음문화사, 1984.

송병선. 『캔터베리 이야기』. 서울: 책이 있는 마을, 2000.

이동일, 이동춘. 『캔터베리 이야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이동일. 「『캔터베리 이야기』 한국어 번역의 문제점 고찰」. 『영미연구』 36 (2016). 27-52.

_____. 「제프리 초서의 비유적 표현을 둘러싼 번역 고찰」. 『영미연구』 39 (2017). 3-27.

Bennett, HS. *Chaucer and the Fifteenth Century*. Oxford: Oxford UP, 1947.

Biggins, David. "Multiple Meanings *in the Canterbury Tales*." ES 47, 1966.

Bosworth, Joseph and T. Northcote Toller, eds. *An Anglo-Saxon Dictionary*. Oxford: Oxford UP, 1882-98.

Boyd, Beverly. "Chaucer and the Liturgy." *Chaucer and Liturgy* 47 (1967).

Bowden, Muriel A. *Commentary on the General Prologue to* The Canterbury Tales. Basingstoke: Macmillan, 1948.

Bradley, Henry, ed. *A Middle English Dictionary*. Oxford: Clarendon, 1978.

Chaucer, Geoffrey. *Chaucer's Major Poetry*. Ed. A C Baugh. London: Appleton-Century-Croft, 1963.

_____. *The Canterbury Tales*. Trans. Nevill Coghil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2.

_____. *The Canterbury Tales*. Trans. David Wright. Oxford: Oxford UP. 1986.

Davis, Normaned. *A Chaucer Glossary*. Oxford: Oxford UP 1981.

Frost, William, ed. *The Age of Chaucer*. Englewood Ciffs, NJ: Prentice-Hall, 1961.

Hinckley, Henry B. *Notes on Chaucer: A Commentary on the Prologue and Six Canterbury Tales*. Oxford: Oxford UP, 1907.

Hopper, Vincent F. *Chaucer's Canterbury Tales*. New York: Barron, 1959.

Lowes, J L. *Geoffrey Chaucer*. Indiana: Indiana UP, 1958.

Macaulay, William. “The General Prologue.” *MLR* 4 (1908).

Robinson, F N.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Oxford: Oxford UP, 2008.

Rockwell, John. “Spiced Conscience in the Prologue.” *N&Q* n.s. 4 (1957).

Spearing, A C, ed. *The Knight’s Tale*. London: Cambridge UP. 1982.

_____. “Chaucer the Writer.” *An Introduction to Chaucer*. Ed. James Winny. Cambridge: Cambridge UP, 1976.

Abstract

A Review on the Modern Translations of *The Canterbury Tales*: Focusing on the Terms of Astrology

Lee, Dongil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e Middle Ages there was wide-spread belief in the science of astrology, according to which the heavenly bodies, and especially the planets, had a direct effect on human life. The character and fate of an individual were influenced by the configuration of the stars at her or his birth. Moreover, certain planets were dominant in a certain period and at certain time of day, and were then able to influence the human life in general. It is quite certain that Chaucer, well aware of the influence of astrology or fortune on Medieval people, tried to reflect their influence on the characters as shown in *The Canterbury Tales*. Henc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exact meanings of some key words in astrology, particularly in the tales of "The Knight's Tale" and "The Frankline's Tale." This is mainly because of the literary function of astrology, which became a major subject matter and a dominant force controlling the major characters. However, modern translations fall short of proper interpretations of some astrological words and phrases as seen in interpretations of *as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etc. I examined those words above in some of modern representative versions in both the Korean and modern English translations of *The Canterbury Tales*, based on various views of leading scholars such as F N Robinson, Larry D Benson, A C Spearing, and Norman Davis. Besides,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interpretations for the words or phrases in question.

Key Words: Astrology, *Apect, Disposicioun, Constellacioun, Positif Lawe*

논문접수일: 2017. 09.15
심사완료일: 2017. 10.08
게재확정일: 2017. 10.10

이름: 이동일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이문동)
이메일: dongbeo@hanmail.net